

렌즈에 담은 시심-고기 석

시가 있는 사진으로 세상을 말하다

- 파주의 풍경들
- 성자가된 장곡리 밤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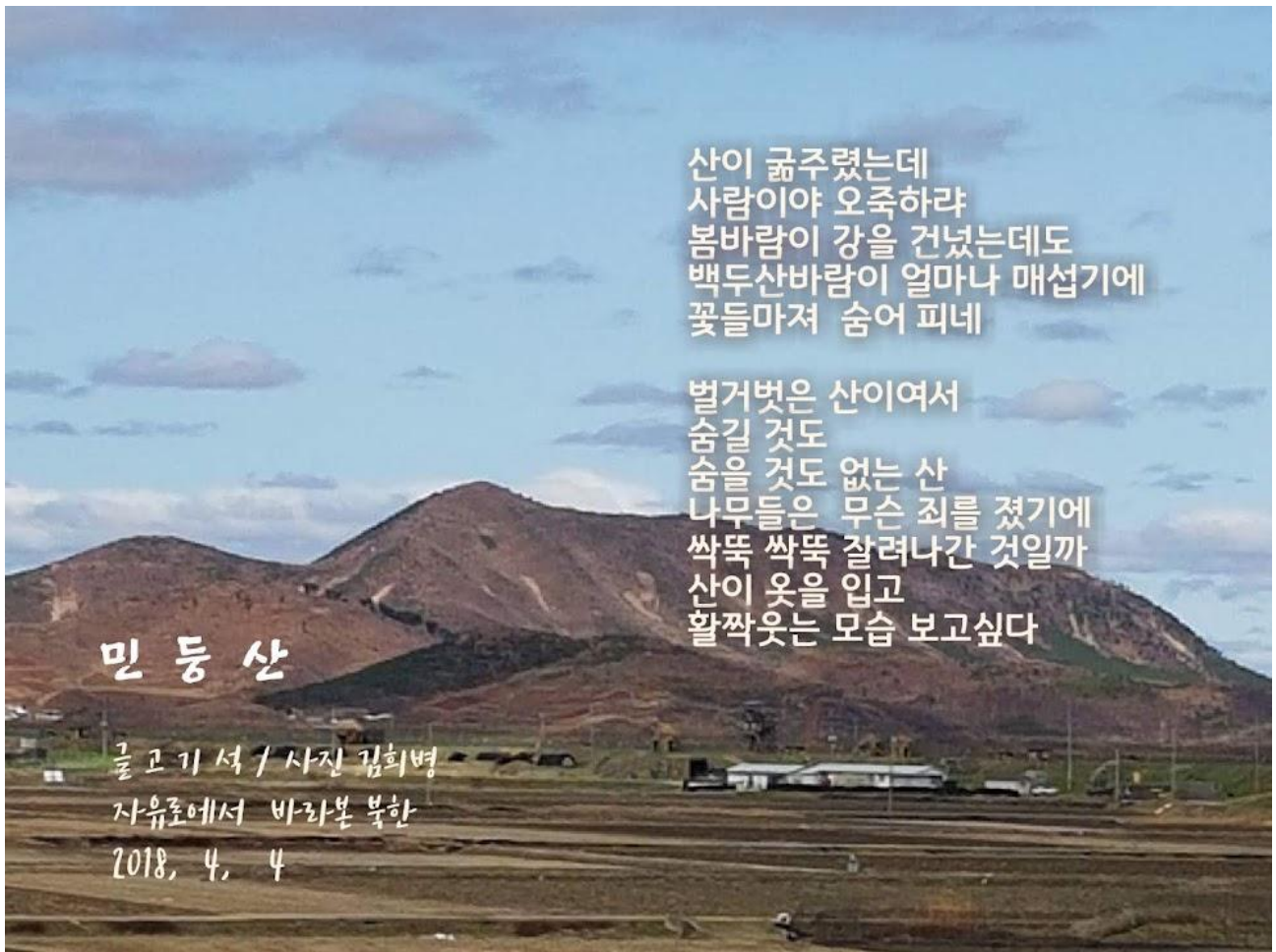
파주의 풍경들


-임진강가에서-

강물을 멈출수 없듯
잡을 수 없는 세월

세월은 강물보고 빨리가자 하고
강물은 세월보고
천천히 흐르라 하네

강물은 멈춰설 수 없기에
위에서 아래로
막히면 돌아서
여울목이 있으면 기다렸다
그렇게 물길 따라 가라하네





임진강 노을

붉은 노을을 보면
왜 그리 얼굴이 뜨거워지는지
내 인생에 저렇게
붉고 찬란한 순간이 있었던가

붉은 노을을 보면
왜 그리 가슴이 먹먹해 지는지
하늘과 강물의 뜨거운 사랑처럼
한번이라도 그런 사랑했던가

글/사진 고기석
2017. 8. 31



임진강가에서

강물을 멈출수 없듯
잡을 수 없는 세월

세월은 강물보고 빨리가자 하고
강물은 세월보고
천천히 흐르라 하네

강물은 멈춰설 수 없기에
위에서 아래로
막히면 돌아서
여울목이 있으면 기다렸다
그렇게 물길 따라 가라하네

글/사진 고기석



꽃상여

글/사진 고기석

2018. 1. 1. 어버님 마지막 가시는길

목은 해를 한 시각 남겨 두고
아흔번째의 고개를 넘으시다가
아버님의 발길이 멈춰섰다
자식들이 그 길을 걸으라는 걸까
일곱 자식들은 꽃상여 메고
아버님이 가시던 길을 따라 나섰다
자식들의 짐을
혼자 지셨던 아버님의 짐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았다
큰 형이 앞에서 소리하면
동생들도 소리하며
따라 가야 한다
그 길이 아버님이 가르쳐준 길이다



철마의 기다림

글/사진 고기석

2018. 1. 31 임진각 철마

60년 넘게 멈춰서
달리고 싶은 철마는
기다림에 지쳐
가슴마저 시뻘겋게 녹슬어
남북을 오가며 달리던
기억마저 아득하다
하루라도 주저 않고 싶건만
이산가족의 눈물이
녹슨 가슴을 젖시니
기다림은 꿈속에서
북으로 북으로 달리고 있다



오일장 약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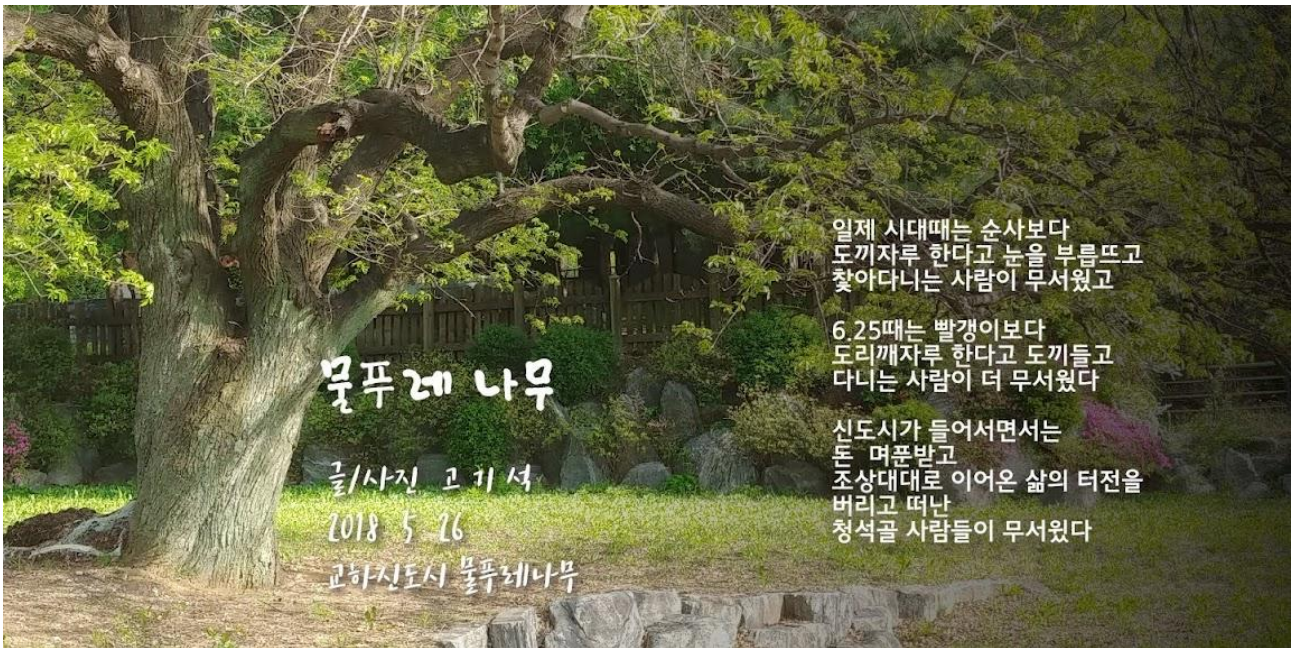
금촌 장날
죄판대 위에서 하루 웬종일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깊은 산에서 수행한 덕인지
발걸음 소리만으로
건강상태를 알수 있었다

심장이 아픈 사람
위장이 망가진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안따까운 것은
나는 그들 상태를 아는데
그들은 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글/사진 고기석
금촌 오일장
2018. 6. 1



뭇푸레 나무

글/사진 고기석
2018 5 26
교하신도시 뭇푸레나무

일제 시대때는 순사보다
도끼자루 한다고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무서웠고

6.25때는 빨갱이보다
도리깨자루 한다고 도끼들고
다니는 사람이 더 무서웠다

신도시가 들어서면서는
돈 며푼받고
조상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
청석골 사람들이 무서웠다



덕진산성

고구려 병사들이 땀흘려 쌓은 성벽
풍파에 견더운 천년세월도 쌓이고 쌓여
도문화재에서 국가사적으로 그 격이 높아졌네

삼국시대부터 대립을 통일로 만들어온 요새
북한의 핵 개발로 남북의 대치국면 앞에서
덕진산성에게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다

글/사진 고기석
2017. 10. 22

*장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덕진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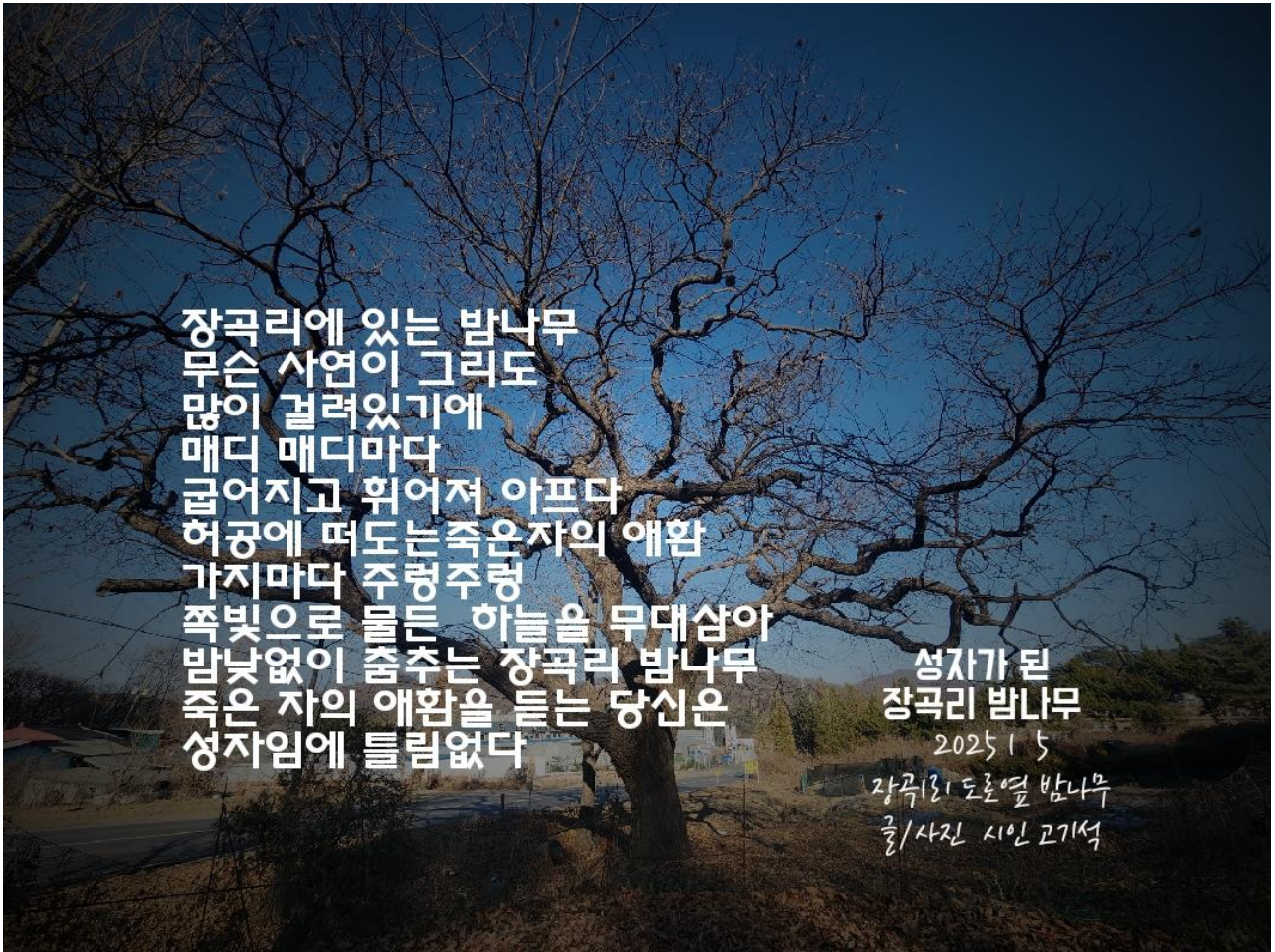
허준

양반사회에서 서자로 태어나셨다구요
온갖 고초 겪으시면서도 어의가 되셨네요
그 뜻 헤아리려하니 고개만 숙여줍니다

높은 곳에 있어 낮은 곳을 잇을줄 알았는데
조선의학 바로잡아 서민들 시름 덜어주셨으니
그의 이름 동서고금에 의성이란 별되어 빛나네요

글 고기석
2017.10. 22

성자가 된 장곡리 밤나무



장곡리에 있는 밤나무
무슨 사연이 그리도
많이 걸려있기에
매디 매디마다
굽어지고 휘어져 아프다
허공에 떠도는 죽은자의 애환
가지마다 주렁주렁
쪽빛으로 물든 하늘을 무대삼아
밤낮없이 춤추는 장곡리 밤나무
죽은 자의 애환을 듣는 당신은
성자임에 틀림없다

성자가 된
장곡리 밤나무
2025.1.5
장곡리 도론열 밤나무
글/사진 시인 고기석

장곡리에 있는 밤나무

무슨 사연이 그리도

많이 걸려있기에

매디 매디마다

굽어지고 휘어져 아프다

허공에 떠도는 죽은자의 애환 가지마다 주렁주렁

쪽빛으로 물든 하늘을 무대삼아

밤낮없이 춤추는 장곡리 밤나무

죽은 자의 애환을 듣는 당신은

성자임에 틀림없다

성자가 된 장곡리 밤나무

202515